

김환기·백남준 작품에도 남은 서예의 흔적



김종영, 소림도(疏林圖), 87×63cm, 종이에 먹과 수채, 1958, 김종영미술관 소장



김환기, 무제, 58x38cm, 신문지에 유채, 1967, 환기미술관 소장

전시일정(장소) 4월 25일까지(김종영미술관)
관람료 무료
☎ 02-3217-6484

한국 현대미술 거장 김환기, 세계적인 비디오아트 작가 백남준, 한국 추상조각 선구자 김종영, 문인 화와 서예를 바탕으로 추상화를 시도한 이응노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작가들을 서예라는 키워드로 조명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김종영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전 ‘화가의 글씨, 서가의 그림’은 전통 서예라는 토대 위에서 서양 미술을 수용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열어간 작가들을 소개한다. 작가 11명 중에는 서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들도 있다. 김환기, 백남준, 정규는 특별히 서예를 가까이한 미술가가 아

니다. 그러나 이들의 미감과 작품관이 전통에서 비롯됐음을 작품에서 읽을 수 있다. 전시에서는 김환기가 신문지에 문자 형상을 그린 작품을 볼 수 있다. 네온 등이 켜진 브라운관 TV 모양 백남준 작품 유리에는 ‘애정만리’(愛情萬里)라는 글씨가 쓰였다. 조각은 하지만 깎지 않는다는 ‘불각’(不刻)의 미를 추구한 김종영, 물성에 관심을 두고 개념미술 작업을 했던 광인식, 우주관에 기반한 기하학적 추상에 전념한 한묵은 미술가지만 서예에 정진했다. 이응노는 서예와 문인화 전통에 기반을 두고 추상화를 시도했고, 황창배는 서구 미술 사조를 가미해 한국화의 경계를 확장했다. 이들의 작품에서는 서예라는 토양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밖에 추사와 위창의 전통을 이은 서예가 김광업, 회화와 서예의 경계를 넘나든 최규명, 독보적인 선화(禪畵) 세계를 구축한 ‘걸레스님’ 중광의 작품도 모았다. 서예라는 공통분모로 작가군을 나눴지만 누가 서예가이고 누가 화가인지의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 어느 순간 글씨와 그림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한국적 전통과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작품만이 남는다. 단색화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부각되는 시대에 전시는 전통 서화가 서양미술의 영향을 받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됐는지 살펴본다. 박춘호 김종영미술관 학예실장은 “작가들은 끊임없이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며 자기화 하고자 했다”며 “이는 한국이라는 지역적인 특수성에서 인류 보편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찾아서

한국전쟁 당시 22개국의 유엔군 참전용사가 한국을 위해 싸웠다. 자신의 나라도 아닌 낯선 땅에서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빈 숨은 영웅들이다. 사진작가 라미 현(42)은 세계를 돌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노병의 모습과 사연을 기록해왔다. 사진을 찍어 그들의 신념과 자부심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노력이다. 라미 현 개인전 ‘프로젝트 솔저 kww’는 참전용사의 모습을 담은 작품 80여 점을 소개한다. 작가는 대한민국 육군 1사단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주임 원사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한국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촬영하는 ‘프로젝트 솔저 kww’를 시작했다. 미국 사진작가인 리처드 아베트의 작품을 오마주해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참전용사의 모습을 묘사하는 작업이다. 2016년 국내에서 열린 한 군복 사진 전시회에서 우연히 미국 해병대 출신 참전용사 살바토르 스칼라토를 만난 후 작가는 해외 참전용사들을 찾아가는 여정에 나섰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터키, 에티오피아 등 세계 각국을 자비로 돌아다니며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모습을 찍었다. 라미 현은 “카메라 프레임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인생을 오래 살아온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참전용사의 모습으로 바뀐다”며 “촬영된 사진을 보면 그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영웅인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시일정(장소) 4월 25일까지(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아트홀)
관람료 무료
☎ 02-3213-2606



라미 현, 'US Puerto Rico 65th Infantry regiment'

작가는 지금까지 1천400여 명의 참전용사 사진을 찍어 액자로 제작해 선물했다. 2023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까지 22개 참전 및 지원국을 방문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찾아서’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시장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국내 참전 군인 촬영도 이뤄진다.



게르하르트 리히터 '4천900가지 색채' 전경

독일 현대미술 거장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색의 향연

25가지 색의 정사각형이 하나의 정사각형 컬러 패널을 이룬다. 이 패널 196개가 모여 대형 패널로 완성된다. 작은 정사각형 4천900개의 조합으로 펼쳐지는 색의 향연이다. 독일을 대표하는 예술가인 현대미술 거장 게르하르트 리히터(89)의 ‘4천900가지 색채’ 작업이다. 루이뷔통 재단 미술관이 보유한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4천900가지 색채’가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리히터의 ‘4천900가지 색채’는 패널을 여러 크기의 작은 격자판으로 조합한 작업부터

하나의 대형 패널로 완성한 작업까지 11개 버전이 있다. 이번 전시 작품은 2007년 제작된 아홉 번째 버전이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패널 2개와 소형 패널 2개 등 총 4개 패널로 구성됐다. 세계 미술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작가로 평가받는 리히터는 1960년대부터 구상과 추상, 사진과 회화, 고전과 반 고전의 영역을 넘나드는 작업을 해왔다. 1966년 산업용 페인트 색상표를 대규모로 확대 재현한 색채 판 그림을 통해 색상을 연구하기 시작한 그는 2007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훼손된 쾰른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디자인 작업을 의뢰받는다. 만화경을 연상시키는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은 중세 시대 본래의 창문에 쓰인 72가지의 다채로운 색채를 표현한 1만1천500장의 수공예 유리 조각으로 이뤄졌다. 창을 가득 메운 자유로운 색상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배치했다. 쾰른 성당 작업과 동시에 진행한 ‘4천900가지 색채’도 같은 방식으로 제작됐다. 리히터는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패널도 직접 붓으로 제작하지 않고 애나멜로 도색했다.

전시일정(장소) 7월 18일까지(에스파스 루이뷔통 서울)
관람료 무료
☎ 02-3432-1854

물빛·하늘빛으로 그린 수묵화...영화 ‘자산어보’



스크린에 한 폭의 수묵화가 펼쳐진다. 남쪽 바다 섬마을의 물빛, 하늘빛, 땅빛으로 그려낸 수묵화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으로 채워졌다. '왕의 남자'(2005)로 첫 사극 천만 영화를 선보인 이준익 감독이 '사도', '동주', '박열'에 이어 열네 번째 영화 '자산어보'를 통해 다시 역사 속 인물을 조명한다.

윤동주 옆의 송몽규, 박열 옆의 후미코처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에도 애정을 보였던 감독은 이번에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형 정약전과 정약전의 옆에서 어류학서 '자산어보' 집필을 도왔던 섬 청년 창대를 불러냈다. 정약용과 정약전은 정조의 총애를 받던 학자로, 수많은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 인물이지만, 창대는 정약전이 '자산어보' 서문에 남긴 것이 전부였다.

정약전은 어보를 만들기 위해 두루 만나본 섬사람들의 말이 제각기 달랐으나,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한 젊은이 창대는 "성품이 신실하고 정밀하며 물고기와 해초, 바닷새 등을 모두 세밀히 관찰하고 깊이 생각해 그 성질을 터득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말은 믿을 만하였다"며 그의 도움을 받아 책을 완성했다고 적었다.

순조 1년(1801) 신유박해로 형제 중 정약중은 참수를 당하고, 정약전(설경구)과 정약용(류승룡)은 흑산도와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다. 호기심이 많았던 정약전은 성리학 대신 지천으로 보이는 바다 생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섬 청년 창대(변요한)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창대는 사학죄인을 도울 수 없다며 거절한다. 양반에게 버림받은 서자였던 창대가 홀로 글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정약전은 서로의 지식을 거래하자고 제안하고,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며 서로의 스승이자 벗이 되어 간다.

이 감독은 "사극을 찍어 오면서 궁극에는 근대성이라는 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했고, 커다란 사건이나 정치, 전쟁사로 그 시대를 규정하는 건 오류라고 생각한다"며 "시대와 불화를 겪은 개인을 하나씩 찾다 보면 집단이 가진 근대성의 씨앗이 보인다"고 역사 속 인물에 천착하는 이유를 밝혔다.

영화는 촬영을 위한 제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흑산도 대신, 흑산도에서 가장 가까운 도초도와 비금도, 자은도에서 촬영했다. 여러 차례 불어닥친 태풍으로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태풍이 남기고 간 파도는 영화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냈고, 이 감독은 "자연이 우리 영화의 스태프였다"

고 말하기도 했을 만큼 영화는 섬의 절경을 눈부시게 담아냈다. 첫 사극에 도전한 설경구는 감독이 "분장을 하고 등장했을 때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았다"고 감탄할 정도로 본인의 걱정이 무색하게 조선 시대 학자로 녹아 들어갔다. 임금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꾼, 시대를 앞서간 학자의 면모는 물론 무식하고 욕심 많은 흑산도 관리 별장(조우진)을 뒤흔과 친하다는 거짓말로 속여먹고, 지낼 곳과 먹을 것을 내어준 따뜻한 인심에 수줍은 듯 할 말은 다 하는 흑산도 여인 가거맥(이정은)과 나누는 알콩달콩한 로맨스로 가벼운 웃음까지 도맡았다.

감독의 설명대로 같은 흑백 영화지만 '동주'가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요절한 시인 윤동주의 이야기인 만큼 '흑'에 무게가 실렸다면, '자산어보'는 유배지이긴 하지만 아름다운 섬에서 따뜻한 사람들이 이어가는 소박한 삶은 '백'에 기울었다. 중후반까지 밝고 경쾌한 리듬으로 진행되는 섬마을에서의 이야기는 창대가 글공부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며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준익 감독과 배우 설경구가 불러 모은 화려한 출연진이 영화를 춤추듯 채운다. 새로운 차원의 밀살맛음으로 웃음을 선사한 조우진은 물론, 오랫동안 이 감독과 함께해 온 정진영부터 류승룡, 동방우(명계남)와 방은진, 김의성 등이 짧은 분량에도 우정으로 함께했다.

감독 이준익
출연 설경구, 변요한, 이정은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 3월 31일

더 파더

프랑스의 극작가 플로리안 젤러가 자신이 쓴 희곡 '더 파더'를 스크린으로 옮긴 심리 드라마. 런던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노인 앤서니의 기억에 혼란이 찾아오고 완전했던 그의 세상을 의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달 열리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후보에 올랐고, 앤서니 홉킨스는 '양들의 침묵'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남우주연상에 도전한다. 앤서니의 딸 앤을 연기한 올리비아 콜맨은 '미나리'의 윤여정과 함께 가장 유력한 여우조연상 후보다.

감독 플로리안 젤러
출연 앤서니 홉킨스, 올리비아 콜맨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 4월 예정

노매드랜드

붕괴한 기업 도시에 살던 여성 '편'은 평범한 삶을 뒤로한 채 홀로 밴을 타고 떠난다. 낯선 길 위의 세상을 마주한 편 여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색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편집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작품상과 감독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작이다.

감독 클로이 자오
출연 프랜시스 맥도먼드
등급 미정
개봉 4월 15일

중국 출신의 젊은 여성 감독 클로이 자오는 세 번째 영화인 '노매드랜드'로 지난해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여성 감독로서는 역대 두 번째로 황금사자상을 받았고, 아시아계 여성 감독 최초로 골든글로브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았다.

서복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인 서복(박보검)과 서복을 비밀리에 옮겨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전직 정보국 요원 기현(공유)의 로드무비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인 서복과 시한부의 삶을 살며 죽음을 앞둔 기현의 동행에 서복을 차지하려는 세력들이 끼어들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용주 감독이 '건축학개론'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미루다 극장 개봉과 함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 동시 공개를 택했다.

감독 이용주
출연 공유, 박보검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개봉 4월 15일

당신의 사월

세월호 참사 7주년을 앞두고 나온 또 한 편의 세월호 다큐멘터리다.

참사 이후 '다이버 벨'(2014), '나쁜 나라'(2015), '업사이드 다운'(2015), '로그북'(2018), '생일'(2019), '유령선'(2019) 등 세월호 사건의 진실과 상실을 담은 영화들이 꾸준히 개봉했다.

'당신의 사월'은 그날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속 깊이 자리한 희망을 이야기한다.

영화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섹션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서울독립영화제, 시네마시아 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벌, DMZ다큐멘터리영화제, 대만국제여성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등에서 소개된 바 있다.

감독 주현숙
출연 이유경, 조수진, 박철우, 정주연, 이옥연, 문종택
등급 전체관람가
개봉 4월 1일



미스터트롯 톱6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들이 대구 모 콘서트를 연다. 지난해 여름에 열린 콘서트와는 달리, 이번 공연은 톱6 진출자로만 구성된 알짜배기다. 진·선·미인 임영웅, 영탁, 이찬원을 비롯해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무대에 오른다.

'미스터트롯'에서 불렀던 곡은 물론이고 '사랑의 콜센타' 등 다른 방송에서 불렀던 곡과 멤버의 개별 곡까지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은 '미스터트롯' 종영 후에도 여러 방송프로그램에 한 몸처럼 출연하며 '케미'를 과시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무대는 단연 임영웅이다. '미스터트롯' 진 자격으로 발표한 '이제 나만 믿어요'를 비롯해 '히어로' 그리고 최근 발매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까지 3연속 히트에 성공했다. 독보적인 가창력과 음색, 그리고 준수한 외모까지 어우러지면서 아이돌급 팬덤을 갖추고 있다.

그가 방송에서 부른 커버곡까지 음원 차트 상위권을 점령한다. 모델로 활약한 쌍용자동차 '올 뉴 렉스턴' TV 광고에 나오는 '히어로'를 정식 음원으로 발매한 것도 팬들의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유튜브에 올라온 무대 영상이 수천만 뷰를 기록하기도 한다.

'찐이야' 열풍을 일으킨 영탁의 경쾌한 무대도 기대할 만하다. 세미 트로트 장르를 부르며 춤까지 소화하는 그의 무대 매너는 지난해 열린 콘서트에서도 객석을 들었다 놔다 했다. 수준급 색소폰 실력을 자랑하는 정동원의 연주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10대지만 삼촌들에게 뒤지지 않는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흡사 '스타킹'을 보는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1년 동안 방송가와 음악가를 함께 돌며 '형제 케미'를 자랑한 멤버들의 합동 공연이 공연의 꽃이다. 아직 '미스터트롯'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들이 출연하는 방송을 무한 반복 재생하는 시청자라면 직접 현장에 가서 이들의 무대를 보는 게 어떨까. 모든 회차 공연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좌석은 거리두기로 운영된다.

공연일정(장소) 4월 22~25일(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관람료 11만~13만2천원
☎ 1544-1555

싱어게인 톱10



JTBC 음악 예능프로그램 '싱어게인' 톱10 진출자들의 공연을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잊힌 가수, 실력이 출중하지만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가수 등을 재조명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종합편성채널로는 이례적인 1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무엇보다 출연진들의 실력 덕분이었다. 1위를 차지한 이승운을 비롯해 정홍일, 이무진, 소정, 이정권, 요아리, 유미, 최예근, 태호 등이 무대를 꾸민다. 이들 대부분이 이 정도 규모의 콘서트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에서 선보였던 감동의 경연곡과 콘서트에서 처음 공개되는 무대 등 다양한 공연을 만나보자.

공연일정(장소) 4월 16~18일(올림픽공원 올림픽홀)
관람료 9만9천~13만2천원
☎ 1544-1555

호피폴라



JTBC '슈퍼밴드' 초대 우승팀인 호피폴라가 팬들에게 생생한 밴드 사운드를 선사한다. 아일(보컬-건반), 김영소(기타), 하현상(보컬), 홍진호(첼로)로 구성됐다. 보컬 2명에 첼로, 피아노, 어쿠스틱 기타 등 여타 밴드와 다른 악기 구성으로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음악을 선보인다. 첫 미니앨범 '스프링 투 스프링'(Spring to Spring)으로 자신들의 음악적 색깔을 보여줬고, 같은 해 8월에는 트로피컬 사운드의 서머송 '렛츠'(Let's)를 발표했다. 최근 두 번째 미니앨범 '앤 덴 데어 워즈 어스에서는 희망적인 분위기의 타이틀곡 '너의 바다'를 비롯해 8곡을 선보였다.

공연일정(장소) 4월 23~24일(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
관람료 11만~12만1천원
☎ 1544-1555

레터플로우



감성 뮤지션 레터플로우가 2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2014년 데뷔 이후 특유의 감성과 애절한 목소리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실력과 싱어송라이터다. 누구나 공감할 일상 속 이야기와 감정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풀어내며 '새벽 감성러, 땅콩부자, 프로 이별러'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다. 30여 장의 앨범을 발매했고 스웨덴세탁소, 소유 등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을 이어왔다. 최근에도 이별 감성을 저격한 신곡 '참 좋았었는데'를 발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대표곡으로 '홀어진다', '우리가 있던 시간', '안부', '충분해' 등이 있다.

공연일정(장소) 4월 17일(CGV 압구정)
관람료 5만5천~6만6천원
☎ 1544-1555

샤이니



최근 새 앨범을 발매하며 2년 반 만에 컴백한 보이그룹 샤이니가 온라인 단독 콘서트로 팬들을 찾아간다. 2018년 2월 일본에서 개최한 '샤이니 월드 더 베스트 2018 ~프롬 나우 온~' 이후 3년 만의 단독 콘서트이자 처음으로 선보이는 온라인 콘서트다. 샤이니는 이번 공연에서 역대 히트곡을 비롯해 지난달 발매한 정규 7집 '돈't 콜 미'(Don't Call Me)에 수록된 곡의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오프라인 콘서트가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편안히 이들의 공연을 보며 '내적 댄스'라도 취해보면 어떨까.

공연일정(장소) 4월 4일(네이버 브이라이브)
관람료 4만9천원



무대만의 매력 증명한 뮤지컬 ‘검은 사제들’

2015년 개봉한 김윤석, 강동원 주연의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 ‘검은 사제들’이 대학로에서 공연만의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뮤지컬은 원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줄거리를 기반으로 한다. 신에 대한 믿음보다는 동생을 잃은 것에 대한 속죄로 신학교에 들어간 신학생 ‘최부제’와 신을 믿으나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김신부’가 등장한다.

김신부는 교통사고 이후 악에 쫓은 소녀 ‘이영신’을 구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지만, 주술을 통해 악귀를 내쫓는 구마(엑소시즘) 의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톨릭 교단에 의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간다. 여기에 그를 반신반의하는 최부제가 힘을 보태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뮤지컬은 악령이나 영혼, 사후세계 등을 다루는 ‘오컬트’(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신비적·초자연적 현상) 장르를 무대만의 매력으로 구현해낸다. 아직 뮤지컬에서는 생소한 오컬트 장르는 생소한 분야로 특수효과나 편집 없이 무대 위에 악령을 어떻게 불러낼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공연을 진두지휘한 오르피나 연출 역시 “마귀의 존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다”며 “영화와는 전혀 다른, 무대에서 상상력과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이 고민했다”고 토로했다.

영화가 탄탄한 이야기의 구조로 극을 이끌어갔다면 뮤지컬은 강렬

한 퍼포먼스로 극을 이어간다. 공연은 보랏빛 조명에 스모그 효과로 음침하지만 성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어둠에 가까운 길은 조명 아래 피어오르다 사라지는 연기는 신비하면서도 무서운 느낌으로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든다. 여기에 사제들의 합창과 종교적 색채가 강한 선율의 음악은 영화에서 느끼기 어려웠던 전율을 선사한다.

공연의 백미는 구마 의식이다. 악령을 거부하려는 영신과 그의 몸을 지배하려 드는 악령, 이 둘이 뒤섞여 펼쳐내는 안무는 마치 눈앞에서 악령의 존재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검은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의상의 악령은 마치 한 명의 인물로 표현되다가도 앙상블의 군무로 변하면서 관객들에게 혼란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그렇다고 공연은 공포감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악령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려는 영신과 그런 영신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려는 김신부, 과거를 극복하려 하는 최부제는 따뜻한 감동을 전한다. 공연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 광선총을 쏘는 사제들의 안무, 구마 의식에 사용되는 돼지의 꿀꿀거리는 소리 등을 넣어 극의 재미를 더한다.

공연일정(장소) 2월 25일~5월 30일(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
관람료 4만4천~8만8천원
☎ 1577-3363



뮤지컬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초연을 올린 창작 뮤지컬 ‘광주’가 두 번째 시즌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군사정권과 맞서 싸운 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광주’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노래한다.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을 오롯이 담아낸 작품으로 광주에 파견된 특수부대 대원 박한수가 무고한 시민이 폭행당하는 참상을 목격하고 이념의 변화를 겪는 과정을 그린다. 초연과 마찬가지로 13인조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고 감동적인 선율을 선사하고,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무대 마지막을 장식하며 깊은 울림을 준다. 슬프고 마음 아픈 소재지만, 고선웅 연출 특유의 감각으로 무거움을 덜어낸다.

공연일정(장소) 4월 13~25일(LG아트센터)
관람료 6만~14만원
☎ 1577-3363

뮤지컬 ‘포미니스’

실화 바탕의 독일 영화를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 ‘포미니스’가 정동극장에서 초연을 올린다. 뮤지컬 배우 양준모가 직접 기획한 작품이다. 뮤지컬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루카우 교도소를 배경으로 피아노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다. 천재적 재능을 가진 피아니스트이지만, 살인수로 복역 중인 18세 소녀 ‘제니’와 2차 세계 대전 이후 60년 동안 여성 재소자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온 ‘크뤼거’가 중심인물이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자신을 격리한 제니와 평생을 과거에 갇혀 살아온 크뤼거는 정반대의 모습이지만, 피아노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각자가 지닌 아픔을 덜어낸다. 작품 후반부 4분가량 이어지는 제니의 피아노 연주는 공연의 백미로 꼽힌다.



공연일정(장소) 4월 7일~5월 23일(정동극장)
관람료 7만원
☎ 1544-1555

피아니스트로 돌아온 정명훈 6년 반 만에 전국 투어 리사이틀



안이 보류되자 2015년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2006년 1월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해 10년간 단원 선발부터 연주력 향상, 레퍼토리 확장에 이르기까지 서울시향을 완전히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항공료 횡령 등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는 서울시향 예술감독 사퇴 이후 1년 반 만인 2017년 6월 롯데문화재단의 '원 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복귀했다.

정명훈은 각종 세계무대에서 지휘자로 바쁜 활동을 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늘 피아노를 곁에 두고 틈틈이 연주해왔다. 2019년

지휘자 정명훈이 다시 피아니스트로 돌아온다. 2014년 10월 생애 첫 피아노 리사이틀을 연지 6년 반 만에 다시 피아니스트로서 무대에 오른다. 세계적 클래식 음반사 도이체 그라모폰(DG)을 통한 새 피아노 앨범 발매를 기념하기 위해 여는 전국 투어다.

대중에게 '피아니스트 정명훈'은 낯설지만 사실 그의 음악 인생은 다섯 살 때 피아노에서 출발했다. 15세에 두 누나 정명화(첼리스트)·경화(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정트리오'로 미국과 유럽에서 연주 여행을 다녔고, 21세이던 1974년에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하며 피아니스트로 세계 음악계에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1976년 미국 뉴욕 청년 심포니를 지휘하면서 지휘봉을 잡기 시작해 1979년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서 본격적인 지휘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피아니스트의 삶과는 거리를 뒀다. 그가 대중 앞에서 피아노를 친 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실내악 무대로만 한정됐었다.

그러던 그는 2013년 12월 독일의 유명 레이블 ECM을 통해 생애 첫 피아노 독주 음반을 냈다. 이는 할아버지로서 어린 두 손녀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발매한 것으로, 피아니스트로서의 정식 음반은 아니었다. 이후 2014년 10월에서야 생애 첫 리사이틀을 열었다.

정명훈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던 2014년 말 박헌정 대표와 갈등이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의 부인이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되고, 서울시향 이사회에서 재계약

8월에는 '원 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에서 지휘와 피아노 협연을 겸하기도 했고, 지난해 말에는 코로나19 시대에 국민을 위로하기 위한 피아노곡 4곡을 재능기부 형태로 녹화해 방영하기도 했다.

지나해 코로나19로 무대에 거의 오르지 못한 정명훈은 12월 귀국해 2주 자가격리를 한 뒤 열흘 간 더 국내에 머물면서 KBS교향악단, 원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기도 했다.

정명훈의 이번 앨범에는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60번'과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브람스의 '세 개의 인터메조' 등이 수록됐다. 이번 공연에서 그는 이 작품들과 아울러 브람스의 '네 개의 피아노 소품'도 연주한다. 이 곡들은 작곡가들이 50~60대에 작곡한 후기 작품들로 정명훈이 다시 피아니스트로 돌아온 나이와 비슷하다.

정명훈은 이번 앨범 발매에 관련해 "음악을 통해 삶의 여러 단면을 표현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열망을 담았다"고 밝혔다.

공연일정(장소) 4월 28일(예술의전당)

관람료 미정

☎ 02-580-1300

국립발레단 클래식 발레 '라 바야데르'

국립발레단이 2016년 3~4월 공연 이후 5년 만에 클래식 발레 '라 바야데르'를 다시 무대에 올린다. 2013년에 처음 무대에 올린 이후 회를 거듭하면서 입소문이 나 인기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인도의 무희'를 뜻하는 '라 바야데르'는 힌두 사원을 무대로 아름다운 무희 '니키아'와 용맹한 전사 '솔로르', 간교한 공주 '감자티' 사이의 배신과 복수, 용서와 사랑을 그리고 있다. 고대 인도를 배경으로 한 화려한 무대와 120여 명의 무용수, 200여 벌의 의상이 동원돼 '발레의 블록버스터'로 불린다. 이번엔 선보이는 '라 바야데르'는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을 33년간 이끈 세계적인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국립발레단의 특성을 살려 일부 안무를 직접 다듬은 '국립발레단 버전'이다.

박슬기, 김리희, 박예은, 신승원, 김기완, 박종석, 이재우, 허서명 등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들이 주역을 맡는다.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수석무용수 김기민과 볼쇼이 발레단 수석무용수 올가 스미르노바도 초청돼 주역으로 무대에 오른다.

특히 김기민은 2018년 11월 '돈키호테' 공연 이후 약 2년 반 만에 국내 무대에 올라 기대를 모은다. 2011년 마린스키 발레단 최초의 동양인 발레리노로 입단해 두 달 만에 주역으로 발탁됐고, 2015년 수석무용수로 승급했다. 2016년 무용계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의 최고 남성 무용수상을 받았다.

공연일정(장소) 4월 27일~5월 2일(예술의전당)

관람료 5천~8만원

☎ 02-587-6181, 02-580-1300



전국 21개 악단 참여 '교향악축제'

예술의전당과 한화가 함께하는 '2021 교향악축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을 주제로 열린다. 올해 33회인 이 축제는 1989년 예술의전당 음악당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첫선을 보인 후 국내 오케스트라들의 큰 잔치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21개 악단이 참여해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참가 악단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음악계 정상화를 염원하는 바람을 담아 큰 편성의 대곡과 20세기 이후 현대 작곡가의 작품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창원시향은 닐센의 교향곡 4번 '불멸'을 통해 희망찬 미래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다. 부천필하모닉과 강남심포니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으로 현 상황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서울시향은 윤이상의 '체임버 심포니'를, 부산시향은 김택수의 '썬'을 연주하는 등 모차르트부터 쇼스타코비치까지 여러 곡을 선보인다.

해외 무대에서 활동하는 김다솔·문지영·손정범·신창용·윤홍천, 주목받는 신예 임윤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손민수·이진상, 경희대 교수 김태형, 중앙대 교수 박진우 등 피아니스트들은 협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또 하피스트 안종도, 플루티스트 최나경,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 바이올리니스트 예스터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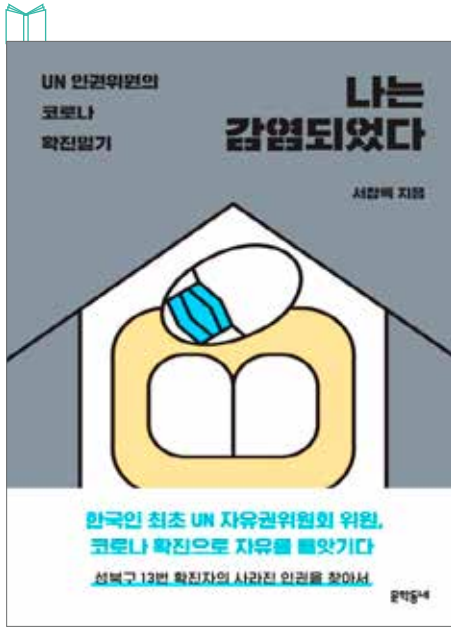
공연일정(장소) 3월 30일~4월 22일(예술의전당)

관람료 1만~5만원

☎ 02-580-1300

바이올리니스트 배원희(에스메 파르티트 리더), 첼리스트 김민지 등도 참여한다.

교향악축제의 의미를 돌아보는 포럼, 로비 및 야외 연주 등도 열린다. 다른 날짜의 협연자들이 음악회에 앞서 릴레이로 작품과 작곡가를 소개하는 '릴레이 렉처'와 야외광장·온라인·라디오 생중계도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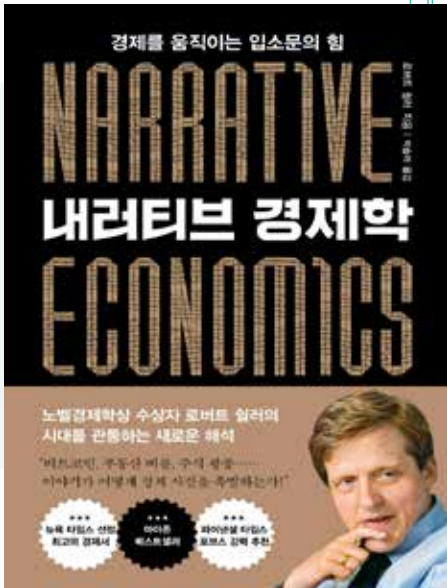


“코로나19는 내 명함에 새겨진 온갖 직책과 직위를 떼버리고, 그저 확진 순서로 넘버링된 번호로 관리되고 격리되고 처리되는 확진자로서 이 사회의 혐오와 모욕과 부조리를 온몸으로 겪어내 보라고 말하고 있었다. 매 순간 맞닥뜨리는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 내가 연구하고 확신을 가졌던 인권에 대한 지식과 신념, 읽고 써온 책들은 한낱 종잇장일 뿐이었다.” 한국인 최초로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인권전문가인 그는 지난해 3월 학회에 참석차 미국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서 교수는 이 책에서 코로나19 확진의 경험이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권전문가로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고 들려준다. 코로나 시대 우리가 바이러스를 잡는 데만 몰두하고 감염자들의 동선을 집요하게 뒤쫓느라 놓쳐버린 ‘인간다움’과 ‘인권’에 대한 깨달음의 이야기다.

서창록 지음/ 문학동네 펴냄/
1만4천원/ 228쪽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의 신간. 세계 경제는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굴러가지 않으며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꽤 많다. 실러 교수는 여기에 질문을 던진다. “경제 주체들이 이성적이지 못한 경제 활동을 왜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대공황 같은 사건들 또한 애초에 예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실러 교수는 사람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전염성 강한 이야기, 즉 ‘경제 내러티브’에 주목한다. 투자자들이 떠들어대는 입소문에서 비롯된 ‘비트코인 내러티브’가 대표적인 예다. 비합리적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망하려면 사람들의 비합리가 반영된 대상을 연구해야 하며, 이 대상이 내러티브라는 점에서 ‘내러티브 경제학’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로버트 실러 지음/ 박슬라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2만2천원/ 508쪽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며 교감하던 가족인 반려동물과 어느 날 갑자기 이별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남은 반려인들은 깊은 상실의 아픔을 견디며 일상을 다시 살아가야 한다. 수의사인 저자는 그 아픔을 그저 참고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치유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치유서다. 저자는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과 이별한 뒤에 슬픔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데도, 마음껏 슬퍼하지 못하고 주변인들과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의 반려인들에게 “충분히 슬퍼해도 괜찮다”며 위로한다. 더불어 그 이별법도 전문 지식을 토대로 알려준다.

이학범 지음/ 포르체 펴냄/
1만6천원/ 264쪽



작가 박범신의 신작. 이번에는 소설이 아니라 시집이다. 그것도 손글씨를 인쇄한 ‘육필 시집’. 2016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소설 쓰기를 중단했던 작가가 “실체 없는 허방에 빠져 많이 아팠던 통한의 시기”에 소설 대신 썼던 시들을 ‘희노애락애오욕’ 일곱 장으로 나누어 실었다. “바라노니 이제 당신들 곁에서 다만 ‘구시렁향아리’로서 깊고, 조용하고, 다정하고, 어여쁘게 늙어가고 싶다.” 작가이름 48년, 그 먼 길을 함께 걸어준 독자들에게 손편지 쓰듯 한편 한편 직접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려 만든 시집이다.

박범신 지음/ 창이있는작가의집 펴냄/
1만8천800원/ 3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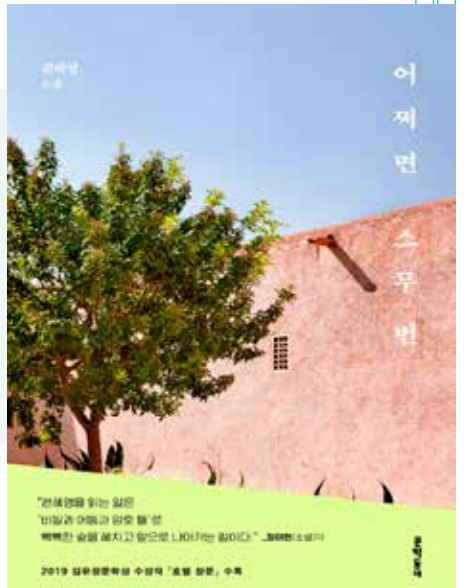
편혜영의 여섯 번째 소설집.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쓴 단편 중에서 성격이 비슷한 여덟 편을 고른 뒤 꼼꼼한 수정과 퇴고를 거쳐 묶어냈다. 서스펜스 소설의 대가이자 이야기꾼답게 익숙했던 공간과 관계를 낫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하면서 묘한 긴장을 조성한다. 2019년 김유정문학상 수상작 ‘호텔 창문’을 비롯한 모든 작품은 등장인물들이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대체로 인적이 드문 소도시나 시골로 옮겨가는데, 평화롭고 조용해 보이지만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시골의 이중성이 부각된다. 소설 속 인물들은 낯선 곳에서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로부터 여전히 큰 위협을 받는다. 이들이 삶에서 직면한 문제들은 언제 어떻게 풀릴지 확실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존재한다.

편혜영 지음/ 문학동네 펴냄/
1만3천500원/ 232쪽



등단 18년 차를 맞은 조해진의 네 번째 소설집. 2019년 김승옥문학상 우수상을 받은 ‘환한 나무 꼭대기’와 자전 소설인 ‘문래’를 포함해 모두 9편의 짧은 소설이 실렸다. 작가는 줄곧 그려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의 시선은 암 투병 중에 의지할 곳조차 없는 중년 여성, 수은 증독이 된지도 모른 채 일했던 미성년 노동자들,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청춘을 보낸 지친 남녀의 모습 등에 머문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목받지 못한 삶을 조명하고 그늘과 어둠 속 사람들에 온기를 전한다.

조해진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1만4천원/ 316쪽



‘경관 명소’ 장흥 천관산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지정

글 손상원 기자

전남 장흥 천관산이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119호로 지정됐다. 장흥군에 따르면 천관산은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10필지로 지정 면적은 133만3천여㎡다. 문화재청은 산등성과 정상 부근을 중심으로 분포한 기암괴석 등 화강암 지형 경관, 역사군락 등 식생 경관, 정상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다도해 경관의 가치를 인정했다. 천관산은 백제, 고려,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대 행정 구역의 중심지였으며 치제(임금이 죽은 신하를 위해 지내는 제사)를 지내거나 봉수를 설치해 국방 요충지로 활용된 역사성이 있는 곳이다. 천관사와 탑산사 등 사찰암자, 방촌마을 고택 등 문화관광 자원도 풍부하다.

사유 재산권의 지나친 침해를 막으려고 역사문화 환경 보존 구역을 지정 구역 100m 반경으로 설정했다고 장흥군은 전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명승



지정을 계기로 군민들이 자긍심을 더 갖게 됐다”며 “천관산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꽃내음 맡으며 힐링해볼까...’경기옛길’ 꽃길 11곳 선정

글 이우성 기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3월 중순~8월 즐길 수 있는 ‘경기옛길’ 꽃길 11곳을 선정해 소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코스는 영남길 5곳, 평해길 4곳, 삼남길 2곳이다.



3월 말 개화하는 개나리는 평해길 제1길 망우산 일대(구리)에서 볼 수 있다. 개나리는 물론 영산홍, 철쭉 등 다양한 꽃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벚꽃은 삼남길 제4길에 위치한 서호천(수원)과 영남길 제1길(성남)에 속한 탄천~황새울공원 구간이 유명하다. 평해길 제2길~제3길로 이어지는 구간(남양주)도 한강변 벚꽃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삼남길 제5길에 인접한 술대공원~고색뉴지엄 사이의 황구지천(수원)에도 벚꽃길이 조성돼 있다. 4월 중순부터 즐길 수 있는 배꽃은 삼남길 제10길의 통복천과 배다리공원 구간(평택)에서 볼 수 있다. 영남길 제8길 죽산성지(안성)에는 장미꽃이 많아 한여름 탐방객의 발길을 잠시 머물게 한다. 새벽에 만개하는 연꽃은 평해길 제3길의 생태공원(양평)에서 볼 수 있다. 영남길 제6길의 농촌 테마파크와 연꽃마을(용인)도 연꽃으로 유명한 곳이다. 경기옛길은 조선 시대 실학자 여암(旅庵) 신경준(1712~1781)이 1770년 집필한 역사 지리서 ‘도로고’(道路考)에 기록된 육대로(六大路)를 기반으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거쳐 조성한 역사문화 탐방로다.

“바다 위 걸으며 힐링하세요” 태안 만리포 해상인도교 완공

글 이은파 기자

서핑 명소인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만리포 해변에 바다 위를 걸으며 서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가 개설됐다. 태안군은 만리포 해변 위쪽 끝에 있는 물담섬과 천리포수목원을 잇는 물담섬 산책로 설치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1월부터 12억4천300만원이 투입됐다. 태안군은 조만간 안전시설 점검을 마치고 일반에 개방할 계획이다. 물담섬 산책로는 시원한 바닷바람과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다 한가운데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해상인도교(180m)와 깔끔한 해안 데크로 조성된 산책로를 거닐며 아름다운 서해와 울창한 송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책로(155m)로 구성됐다. 태안군은 물담섬 산책로를 최근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천리포수목원과



연계한 언택트 생태관광코스로 육성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만리포 해변이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맞는 관광지로서 자리 잡도록 국내외 최신 관광 트렌드를 분석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됐다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해미순교성지가 국제성지로 지정됐다. 서산시에 따르면 교황청은 지난 3월 1일 해미순교성지를 국제성지로 지정, 선포했다. 국내에서 국제성지 선포는 2018년 9월 서울대교구 순례길 이후 2번째며, 아시아에서는 3번째다. 국내 단일성지로는 해미순교성지가 유일하다.



해미순교성지는 유명한 성인이 있거나 특별한 기적이 있었던 곳은 아니지만, 이름이나 세례명을 남기고 순교한 132명의 천주교 신자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 기록되지 않은 2천여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1800년대 병인박해 등 천주교 박해로 처형된 곳이다. 전 세계의 국제성지로는 역사적 장소인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산티아고 등 3곳, 성모 발현지인 멕시코 과달루페와 포르투갈 파티마 등 20곳, 성인 관련 순례지 6곳 등이 있다. 한광석 해미순교성지 전담 신부는 “해미순교성지의 국제성지 선포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순교자들의 신앙을 모범으로 인정하고 이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린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행정호 서산시장은 “해미순교성지가 국제성지로 지정된 것은 서산의 숭고한 역사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성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해 더 많은 시민이 편하게 찾고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